

광주시교육청 'u-러닝 교육도시건설 프로젝트' 1년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광주 '성큼'

학습지원 콜센터·사이버 가정학습 등 큰 호응

전국 최초 시행...미래 학교교육 새모델 제시



지난 2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생 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에서 인순일 교육감 등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이 전시관내에 마련된 인터넷 학습 시스템을 견학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문제야' 구제...용연학교의 성공

개교 1년...작년 낙오자 없이 91% 고교 진학

개교 1년째를 맞이한 용연학교가 학교 부적응 학생을 구제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광주청소년교育원이 운영하는 용연학교(동구 내남동)는 중학교에서 '문제야'로 낙인찍힌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하는 대안 교육 위탁기관이다. 용연학교는 일반 대안학교와는 달리 원적 학교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업시간 수를 맞춰면 졸업장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용연학교에는 2008년 2학기 51명(중2 27명, 중3 24명)의 학생이 입교해 모두 원적 학교로 돌아갔으며, 현재 2~3학년 77명이 재학중이다.

특히 지난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친 24명 중 고교에 진학한 학생은 22명(91.6%)에 이른다. '문제야'로 불리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 학교를 거쳐간 뒤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용연학교는 혁신교사와 광주시교육청 직

원 100명이 학교 부적응 학생을 돋기 위한 목적으로, 사비를 털여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설립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용연학교의 교육 방식은 '자율과 배려'다. 이 학교에선 폭력, 왕따, 지각, 결석 등 4가지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

수업도 입시위주의 일반 학교와 달리 학생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덕의 경우 수업 시간 절반은 집단 상담이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수학은 초등학교 과정의 기초 개념부터 가르친다.

이러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방식으로 그동안 낙오자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학교운영을 해 오고 있다.

이 학교 김철구 교장은 "입시와 성적위주의 교육에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해 주는 게 교육 목표"라면서 "문제야는 잘못된 교육제도가 만들어 낸 것일 뿐 문제야로 태어난 아이는 없다"고 말했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중인 '학생 중심 u(유비쿼터스)-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미래 학교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로 시행 1년째를 맞은 이 프로젝트는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 육성하고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이처럼 종합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첫 사업으로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진단육성센터를 운영하고, 재능대회 개최, 영재교육 확대, 온라인 재능스타 발굴 등을 추진했다.

또 학생과 교사의 교실내 수업 지원을 위해 각종 학습자료 등이 완비된 교육포털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국 최초의 원어민 화상콜센터 운영, 맞춤형 단계별 교사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도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학생들이 공부 도중 궁금한 점을 24시간 상담 할 수 있는 학습지원 콜센터와 20만명이 회원으

로 가입한 사이버가정학습 '빛고을넷'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낸 대표적 사업이다.

또한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내 유·무선 인터넷망 확충, 학교와 교육 관련 전문가, 퇴임교원, 지역사회 등을 총망라한 인적자원 확보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학습 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학생 개인별로 자신의 재능을 찾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최근 대학들이 확대 시행중인 입학과정판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생 중심 u-러닝 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올해 40억원을 투입했으며, 5년간 모두 28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 25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u-러닝 성과 보고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 갖고 홍보관과 전시관도 설치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실력광주'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른 지역보다 한발 빠르고,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면서 "u-러닝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美 민권운동 성공 핵심은 시민 모금화 사업"

전남대, 글렌 엑스큐 교수 초청 'BK21 해외석학 특별강연'

전남대 사학과와 역사문화연구센터, 사학과 BK 등은 지난 24일 인문관 1호관에서 미국 조지아주립대 사학과 글렌 엑스큐(Glenn T. Eskew) 교수를 초청해 'BK21 해외석학 특별강연'을 가졌다. <사진>

글렌 엑스큐 교수는 '기억과 감성-미국 남부 민권운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 흑인민권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시를 기점으로 한 민권운동과정 및 기념사업 등을 대해 발표했다.

글렌 엑스큐 교수는 '민권운동은 미국 현대 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면서 "개인과 시민, 주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완성된 기념사업이 없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흑인민권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과 시민의 30~40년에 가까운 지속적인 운동의 산물이라는 점이며, 주 정부나 연방정부는 사회적 분위기에 이끌려 뒤늦게 지원 등에 동참한 형태라는 점이다.

그는 또 "민권운동 성공의 핵심은 평범한 개



인이나 시민의 모금화사업이었다"면서 "한푼 두푼 모은 자금으로 전 미국의 초·중·고교를 상대로 홍보 및 교육사업을 펼쳤으며, 이에 감동한 주 또는 미국의 국민이 동참하면서 민권운동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역사만기는 당사자들의 뒷"이라며 "몽고메리의 민권운동은 단순한 흑인차별철폐를 넘어 소수민족 보호, 동성애자 차별금지, 범 세계적 인종차별 반대운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동조합(위원장 이재규), 노인복 지센터(센터장 김용섭)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행사이다.

특히 여직원회는 멀티, 돌산갓김치 등을 공동구매해 절약한 성금과 전 구성원에게 연탄나누기봉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 1천여만원을 모았다. 노동조합은 지난 5월 체육대회에서 받은 경기상금을 여직원회에 기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탄 성금을 모았다.

광주여대 2009 해외인턴십 설명회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는 27일 오후 2시~4시 교내 정보통신관 5층 국제교育원 세미나실에서 재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여대 국제교육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주)글로벌인턴쉽컨설팅이 함께 주관해 재학생들에게 1년 장기 유급 인턴십과 국비지원 해외인턴십, 2~3개월 과정의 방학중단기 인턴십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접수, 인터뷰, 출국까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한다.

광주여대 국제교育원 관계자

는 "요즘 대학생들은 해외에 가서 영어만 공부하고 돌아오는 형태의 연수보다 취업난을 뛰는 해외인턴십, 해외 경험을 직접 쌓는 워킹홀리데이 형태를 선호한다"면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 해외인턴십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글로벌인턴쉽컨설팅은 정부의 해외인력양성 사업 중 하나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실시하는 '대학생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에 민간업체로는 최초로 지정공모에 선정돼 프로그램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해외인턴십 분야의 전문회사이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한·일·중 삼국의 연구자들이 27일 전남대에서 '전근대 동아시아 흔인의 사회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강래 사학과 교수)은 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중국 안휘대학 휘학연구센터와 학술적 우의를 다지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흔인 규법과 의례에 함축된 의미 및 특징

을 살펴보면서 역사와 사상, 인류와 민족 분야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27일 오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남대 인문관 1호관 학술회의실 113호에서 열리며, 28일 오후 4시에는 전남대 기초학문연구동 호남학연구원 앞마당에서 호남학연구원 소속 최원종씨와 박미향씨의 전통혼례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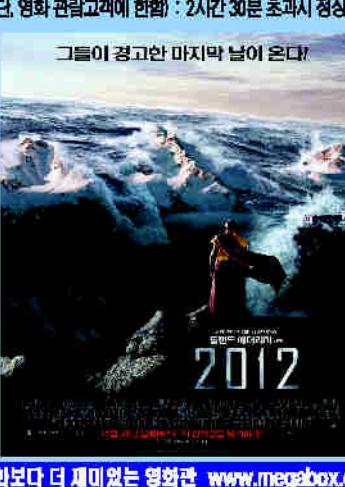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영 / 화 / 안 / 내

메가박스

M관 2012 (124)	최고급관
2관 백야행 (184)	
3관 2012 (124)	
4관 풍길동의 후예 (124)	
5관 풍길동의 후예 (124)	
6관 송로이스트 (124) / 백야행 (184)	
7관 닌자어쌔신 (184)	
8관 크리스마스 캐롤 (전체)	
9관 2012 (124)	

* 아프리카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별 고지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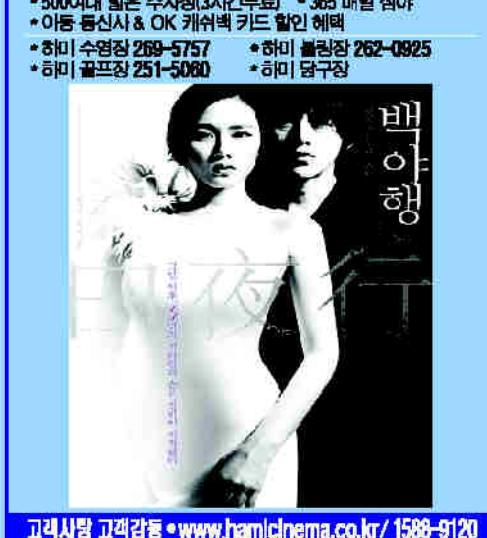
콜롬버스시네마

1관 백야행 (184)
2관 백야행 (184) / 바람 (184)
3관 풍길동의 후예 (124)
4관 풍길동의 후예 (124)
5관 청담보살 (184)
6관 크리스마스 캐롤 (전체)
7관 2012 (124)
8관 2012 (124)
9관 닌자어쌔신 (184)
10관 2012 (124)



하미시네마

1관 백야행 (184)
2관 풍길동의 후예 (124)
3관 굿모닝 포레지던트 (전체)
4관 집행자 (184) / 솔로이스트 (124)
5관 풍길동의 후예 (124)



씨네스전대

1관 2012 (124)
2관 2012 (124)
3관 풍길동의 후예 (124)
4관 청담보살 (154)
5관 솔로이스트 (124)
6관 트와일라잇 (124)
7관 백야행 (184)
8관 2012 (124)
9관 2012 (12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제일시네마

1관 20